

최경창(崔慶昌)의 시세계와 특성*

선지영**

차 례

1. 서론
2. 작품세계
 - 1) 연모의 정한
 - 2) 선계의 동경
 - 3) 현실에 대한 비판
3. 최경창 시의 특성
4. 결론

| 국문초록 |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1539~1583)이 생활했던 시기는 사대사화로 인한 붕당정치와 훈구파를 중심으로 화려한 시적 기교와 난삽한 수식으로 관료적 문학관이 배태되었고 신진 사림파를 중심으로는 기교를 반대하고 청정한 처사적(處士的) 문학의 정신세계를 추구하였으나, 이들은 도학적 자유로운 성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던 시기다.

본 논문에서는 최경창의 작품세계를 통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인생관 및 가치관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풍격(風格)을 구하고자 한다. 풍격이란 작가의 인품이나 사상 등이 작품 속에 복합적으로 구체화 된 양상이기 때문에 최경창의 문학적 위상도 규명될 수 있다고 본다. 작품세계는 주제에 따라 연모에 정한, 선계의 동경,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분류해 살펴보았다.

먼저 최경창의 작품 속에는 연정(戀情)을 대상으로 한 시가 상당히 있는데 이와같은 작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는 아마 풍부하고 섬세한 여성의 감정에 자신의 낭만적 감정을 표출하는데 부합되어 자연스럽게 시적 표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선계(仙界)를 동경하게

* 본 논문은 한국시가문화학회 2021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박사수료

된 것은 당시 문단의 하나인 유선시(遊仙詩)를 모작(模作)하게 된 소단(騷壇)의 흐름과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현실의 좌절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초월적 선계를 동경하고 찬미하였다고 본다.

최경창(崔慶昌)시의 풍격(風格)은 청신(清新)한 풍격에 있다. 청(淸)은 대체로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산뜻하며 순수한 자연의 산천경개, 나아가 일상세계를 초월한 선경(仙境)이나 선취(仙趣)를 느낄 수 있는 맑고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한 것과 관련된 시의 풍격(風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에 쓰인 시어(詩語)는 일반적으로 2자의 용어법, 이미지 어휘의 사용, 악부시(樂府詩)계열 작품의 일상어 활용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본다.

핵심어: 최경창, 풍격(風格), 청(淸), 연정(戀情), 현실비판

1. 서론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1539-1583)이 살았던 시대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하였으나 목릉성세(穆陵盛世)라 불릴 만큼 문학적인 면에서는 매우 활발하고 왕성한 시기였다. 조선초기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시풍은 주자학적 문학관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문풍은 도학에 의한 유학의 치리적인 공리성이 문학의 본질적인 관념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고죽이 생활하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사대사화로 인한 붕당정치와 훈구파를 중심으로 화려한 시적 기교와 난삽한 수식으로 관료적 문학관이 배태되었고, 신진사림파를 중심으로는 기교를 반대하고 청정한 처사적(處士的) 문학의 정신세계를 추구하였지만¹⁾ 이들은 모두 도학적 문학관의 태도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최경창, 백광훈, 이달 등 이른바 삼당파(三唐派) 시인들에 의해 인간 본래의 자유로운 성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당시풍(唐詩風)으로 일신하면서부터 많은 문호들에 의해 목릉성세(穆陵盛世)의 문학적 전성기를 이루게

1) 朴奎奎, 「孤竹 崔慶昌의 漢詩에 나타난 人間觀」, 『瑞江大論文集』 19, 2000, 2쪽.

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경창의 작품세계를 통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인생관 및 가치관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풍격을 구하고자 한다. 풍격이란 작가의 인품이나 사상 등이 작품 속에 복합적으로 구체화된 양상이기 때문에 최경창의 문학사적 위상도 규명될 수 있다고 본다.

2. 작품세계

최경창(崔慶昌)의 시에 대한 분류는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그의 작품 가운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두운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최경창(崔慶昌)의 삶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고, 신선 세계라는 이상세계를 통해 현실 도피와 초탈을 갈망한 선계와 사대부의 삶 가운데 여인에 대한 연모(戀慕)의 정(情)을 노골화한 것은 쉽지 않은 삶이었기에 이처럼 분류하였다.

1) 연모(戀慕)의 정한(情恨)

정(情)과 한(恨)은 우리의 고유한 기본 정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정(情)의 속성은 따뜻하고 포근하나 한(恨)은 안타깝고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한(情恨)은 그리움의 지나친 감정, 사랑으로 인한 설움(哀)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염정시(艷情詩) 또는 향렴시(香奩詩)라고도 한다. 대개 이런 유의 작품은 남녀 간의 사랑이 주된 소재가 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조선조 중기에 성행하면서 염정시(艷情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염정시(艷情詩)는 단순한 애정행각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진솔한 정(情)의 표출을 통해 정서적 감동과 그 시대 삶의 모습, 시대적 분위기와 변화를 엿볼 수도 있다. 그리고 대체로 매혹적인 자태에 대한 시각과 감각적인 정교한 묘사, 기려(綺麗)한 이미지의 묘사성 표현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簾幕深沉隱曉光	주렴장막 어둑한데 새벽빛이 밝아오고
五更殘夢到遼陽	오경에 겨우 꾀 꿈 요양에 이르지만
孤鸚却喚淸愁去	외로운 앵무새 도리어 맑은 시름 깨우니
輕霧霏霏濕海棠	얇은 안개 부슬부슬 해당화 적시네

<閨思>²⁾

위의 시는 시적 주체인 작중 화자가 여성이다. 작가와 작중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성화자(異性話者)인데 작가와 시적화자의 성(性)이 일치하지 않는 작품의 경우에는 작가의 독특한 문학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다고 본다. 즉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한 이유는 이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라든가 애절한 정서를 표현하는 데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애절한 목소리가 더욱 적합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기구(起句)에서 주렴(珠簾)은 규방 주변의 사물로 여성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심침(深沉)은 여인의 소망과 꿈이 무너지고 쓸쓸한 규방을 홀로 지키고 있는 고독한 화자(話者)의 상황을 암시한 것이라 본다. 승구(承句)는 틈틈이 그리운 입을 꿈속에서라도 만나고자 하지만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이르러서야 겨우 잠깐 잠이 들어 임이 계신 요양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임을 그리며 잠 못 이루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이 잘 표현되었다. 전구(轉句)는 꿈에 요양에 이르러 이별의 긴 세월만큼이나 깊은 고통과 복받치는 그리움의 정을 임과 함께 풀고자 했는데 무심한 앵무새가 갑자기 울어 잠을 깨웠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구(結句)는 잠을 깬 뒤 주위의 풍광을 묘사한 것인데 안개와 부슬부슬 비는 화자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주위의 광경(光景)을 묘사하여 여인의 정한을 표출한 것은 악부시(樂府詩) 계열에 속하는 작품³⁾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2) 『孤竹集』

君居京邑妾楊州	당신은 서울 살고 저는 양주 있으니
日日思君上翠樓	날마다 님 생각에 푸른 다락 오르지만
芳草漸多楊柳老	고운 풀은 짙어지고 버들은 늙어가니
夕陽空見水西流	석양에 부질없이 서쪽 가는 강물만 보네

〈無題〉⁴⁾

위의 시는 제목이 무제(無題)다. 전통적인 제목의 역할은 대개 시에서 전개될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해주거나 주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파제(破題) 혹은 점제(點題)라고 하는데⁵⁾ 일반적인 시는 제목에서 제시한 내용을 본문에서 언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전통적인 파제(破題)나 점제(點題)를 거부하고 무제(無題)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마땅히 붙일 만한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제(無題)라고 함으로써 독자에게 적극적인 독시(讀詩)를 통해 연상과 상상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목의 시에 비해 다양한 의미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본다. 기구(起句)에서 한양과 양주는 임과의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만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한 것이다. 임을 만날 수 없다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승구(承句)는 그리운 임 때문에 날마다 부질없이 누각에 올라 멀리서 걸어 올 것만 같은 환상 속에서 점점 기다림에 지쳐가는 모습과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짙게 내재되어 있다. 전구(轉句)는 누각에서 내려다보이는 방초와 버드나무가 날로 푸르러 간다는 것은 세월의 흐름을 의미한 것이지만 이별 후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고통을 알지도 못한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오시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그리움의 정서가 극에 이르고 있는 모습이다. 결구(結句)에서 석양은 화자가 하루 종일 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이며, 서쪽으로 흐르는 물을 속절없이 바라다본다는 것은 임과 헤어져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물결 따라 임이 계신 곳에 가고

3) 卞鍾鉉, 「崔慶昌漢詩 研究」, 『東洋漢文學研究』 第11輯, 동양한문학회, 1997, 28쪽.

4) 上掲書

5) 이지은, 「李商隱戀愛詩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5, 45쪽.

싶은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임에 대한 그리움이 감각적이고 감상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玉頰雙啼出鳳城	옥 같은 뺨에 눈물 흘리며 한양을 떠나려니
曉鶯千轉爲離情	새벽에 지저귀는 앵무새 소리 이별의 정 때문이네
羅衫寶馬汀關外	비단적삼에 좋은 말을 타고 하관을 벗어나니
草色迢迢送獨行	풀 빛 아스라한데 홀로 가는 것을 전송하네.

<贈別>6)

최경창(崔慶昌)이 계유년(1573)에 북도평사(北道評事)로 있을 때 홍랑(洪娘)은 소면(所旻)이었다. 이듬해 갑술년(1574)에 최경창(崔慶昌)은 서울로 돌아왔고, 을해년(1575)에 병으로 봄부터 겨울까지 침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홍랑(洪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로 발행하여 7일 만에 경성(京城)에 도착하였다.⁸⁾ 그런데 “유성룡(柳成龍)이 최경창(崔慶昌)은 사람 됨됨이가 검속함이 없어 국휼(國恤)을 당한 때에도 양계(陽界) 창기(娼妓)를 데리고 있으면서 첩(妾)으로 삼았다.”⁹⁾는 기록이 있는데 국휼(國恤)은 곧 인순대비 심씨(沈氏)(仁順大妃 1575년 1월2일~1578년 1월 1일)의 상(喪) 중인 것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최경창(崔慶昌)은 홍랑(洪娘)과 함께 집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조 즉위 초에 평안도와 함경도 기녀들을 사유하는 관행을 특별히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최경창(崔慶昌)이 북방 관비, 혹은 양계(兩界) 창기(娼妓)의 여성을 사유화한 행위는 국법과 특별조치에 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기는 지역 경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데도

6) 上揭書

7) 시첩(侍妾)의 다른 표현으로 잠자리까지 시중을 드는 기녀라는 뜻이다.

8) 南鶴鳴, 『晦隱集』 第5, 「詞翰」 『韓國文集叢刊 續』 51.

崔孤竹贈洪娘詩序曰“萬曆癸酉秋 余以北道評事赴幕 洪娘隨在幕中 翌年春 余歸京師 洪娘追及雙城 而別 還到咸關嶺 值日昏雨暗 仍作歌一章以寄余 歲乙亥 余疾病沈綿 自春徂冬 未離牀褥 洪娘聞之 卽日發行 凡七晝夜已到京城 時有兩界之禁 且遭國恤 且遭國恤 練雖已過 非如平日 洪娘亦還其土

9) 『선조실록』 선조12년 기묘(1579) 6월8일 임오.

지역 경계를 이탈했다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범령도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지만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온 홍랑(洪娘)을 보내는 심정은 너무나도 애절했을 것이다. 기구(起句)에서 한양을 떠나려는 화자의 뺨에 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린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눈물은 그리움의 표현 매체라고 본다. 이별을 하거나 그리움에 애를 태웠던 여성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깊은 한탄을 대신했던 것이다. 임과 헤어지고 싶지 않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승구(承句)에서는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이라는 것을 피꼬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아름다운 봄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작중 화자는 임과 이별을 하게 된다. 한없이 울고 있는 피꼬리는 화자의 분신인 것이다. 전구(轉句)는 고운 자태의 모습을 한 홍랑이 홀로 북방으로 떠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 결구(結句)는 함께 가지 못한 아쉬움과 무사히 잘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옥협(玉頰), 효앵(曉鸞), 나삼(羅衫), 보마(寶馬) 등 화려한 시어들은 최경창의 풍체(風體)를 알 수 있는 표현들이라 본다.

烟雨空濛堤柳垂
行舟欲發故遲遲
莫把離情比江水
流波一去沒回期

안개비 자욱한데 방죽에 버들 늘어져 있고
나룻배 떠나려다 짐짓 머뭇거리네
이별의 정 강물에다 비유하지 마소
흐르는 물결 한 번 가면 돌아올 기약 없으니까요

<有贈>

연우(烟雨) 또는 무우(霧雨), 몽우(濛雨)가 내릴 때면 주변이 어두워지고 시적 화자의 고독한 감정은 느낌이 더욱 심화된다고 보는데 강가에는 버들이 늘어져 있다. 버드나무는 수유(垂柳), 연유(烟柳), 화유(花柳), 세유(細柳), 취유(翠柳)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별을 노래하는 시에 자주 등장하며 이별의 정서를 촉발하는 중요한 의상(意象)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서경을 통

해 최경창(崔慶昌)이 누군가와 이별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승구(承句)는 이별하는 순간에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도 헤어지기가 아쉬워 배를 머뭇거리며 떠나가지 않는다. 이별을 서로가 아쉬워하고 있다. 전구(轉句)와 결구(結句)에 강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유동성성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물성(物性)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이별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지 말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아쉬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물(景物)을 통한 시각적 이미지의 정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시의(詩意)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折楊柳寄與千里人	버들가지 꺾어 먼 길 떠나는 입에게 드리노니
爲我試向庭前種	이 몸을 위하여 창가 앞뜰에 심어 주소서
須知一夜新生葉	모름지기 밤이 지나 새잎이 났거든
憔悴愁眉是妾身	초췌하고 수심어린 눈썹 첩인 줄 아소서

<鬪方曲>

위의 시는 7언 고시로 고죽(高竹)이 홍랑(洪娘)에게 주는 시의 서문에 “만력 계유년(1573) 가을, 내가 북도평사로 막사에 나가 있을 때 홍랑(洪娘)도 따라와 막사에 있었다.”¹⁰⁾라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경창(崔慶昌)이 홍랑(洪娘)을 만난 것은 북평사로 함북 중성에 부임한 때부터라고 본다. 그 후 내직으로 돌아올 때 홍랑(洪娘)은 쌍성까지 쫓아와 헤어지고는 돌아갔는데 함관령에 이르러 날이 저물고 비가 내려 어둑해지자 하룻밤을 묵으면서 시조를 지어 고죽에게 보냈다. 위의 시는 최경창(崔慶昌)이 병으로 누워있을 때 서울까지 온 홍랑(洪娘)에게 그 때의 시조를 한역하여 준 것이다. 이별을 노래한 시를 보면 감정의 강조를 도모하기 위해 절유(折柳), 고운(孤雲), 주배(酒杯) 등과 같은 시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시 역시 절유(折柳)라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버

10) 南鶴鳴, 『詞翰』 『晦隱集』 第5, 『韓國文集叢刊 續』 51.

崔孤竹贈洪娘詩序曰 “萬曆癸酉秋 余以北道評事赴幕 洪娘隨在幕中

드나무는 양(楊), 유(柳) 혹은 양유(楊柳) 등으로 불리는데 봄날의 서정이나 이별의 장면에서 자주 등장한다. 특히 버드나무(柳)가 머무르다(留)와 해음(諧音) 관계에 있는 단어이므로 두유(逗留), 만유(挽留)의 뜻과 함께 순로(順路)를 소망하는 이의 응축된 정서를 대변하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¹¹⁾ 이 병기(李秉岐)와 백철(白鐵)은 홍랑(洪娘)의 시조를 가히 여류들의 장기(長技)인 절박한 생활 속에서의 생활감정과 인정(人情)을 교묘(巧妙)한 수사로써 읊어 낸 가절(佳節)이라고 평한 바가 있다.¹²⁾ 전구(轉句)의 신생엽(新生葉)은 결구(結句)의 수미(愁眉)이며 버들잎을 통해 여자의 가늘고 고운 눈썹을 상징하고 있다. 이는 곧 홍낭(浪)이다. 비록 서로가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항상 마음은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당시 유자(儒者)로서 남녀관계의 사랑은 금기시 되었지만 마음속에 담겨있는 진솔하고 순수한 감정은 억제할 수가 없었다고 본다.

櫻桃花落玉階空	앵두꽃은 떨어지고 옥 계단은 비었는데
淚濕羅巾纈淺紅	비단 수건 눈물 적셔 옅은 빛을 띠고 있네
愁倚繡床無戲伴	수심으로 비단 침상 기대봐도 희롱할 짝이 없으니
喚回鸚鵡出金籠	앵무새나 부르려고 금빛 새장 내어오네.

<宮怨>¹³⁾

당시(唐詩)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이 즐겨 쓴 시가 궁원(宮怨)이나 궁사(宮詞)와 같은 것이다. 이런 시들은 궁중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의 삶이나 애환을 상상을 통해 시로 쓴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미(綺靡)한 성격을 띠게 된다.¹⁴⁾ 위의 시는 악부시(樂府詩) 계열에 속하는 작품으로 화자가 여성이다. 옥

11) 배다니엘(Bae Daniel), 「唐代 이별시에 이입된 折柳 묘사의 효용성」, 『중국문학 연구』 제 88집, 중국문학연구회, 2019, 116쪽.

12) 李秉岐 白鐵 共著,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80, 130쪽.

13) 上掲書

14) 卞鍾鉉, 「崔慶昌漢詩 研究」, 『東洋漢文學 研究』 第11輯 1997, 28쪽.

계(玉階)라는 시어를 통해 볼 때 시적 화자는 평범한 궁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 속에는 시적 자아의 심리와 행위가 전개되는 명확한 시간은 드러나 있지 않으나 의수상(倚繡床)이라는 시어를 통해 볼 때 밤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구(起句)와 승구(承句)는 봄이 지나가고 앵두꽃이 떨어져도 애타게 기다리는 임은 오지 않아 무척이나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화자의 심리태도를 묘사하고 있다. 전구(轉句)와 결구(結句)는 슬픔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앵무새와 희롱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렸다. 이처럼 궁녀라는 화자를 통해 사모의 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조선조에는 엄정(艷情)의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것은 대개가 기녀들이었을 뿐 양반계층에서는 매우 드물었다. 그것은 여아지정(女兒之情)이라는 일언으로 목살 또는 간과해버리는 유교적 통상관념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던 데에서 주로 기인한 것이다.¹⁵⁾ 하지만 최경창(崔慶昌)은 여성들의 애뜻하고 진솔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형상화한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이와 같은 작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는 아마 풍부하고 섬세한 여성의 감정이 자신의 낭만적 감정을 표출하는데 부합되어 자연스럽게 시적 표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시대적 또는 문학적 분위기의 영향도 받았다고 본다.

2) 선계(仙界)의 동경

최경창(崔慶昌)의 시에는 선계(仙界)의 환상과 낭만을 읊은 시들이 다수 있는데 이들 시에는 황홀한 신선세계의 묘사를 통해 구선(求仙)의 흥취를 노래하거나 현실적 갈등과 질곡에서 벗어나 인생의 번뇌를 훌훌 털어버리는 자유와 초월을 노래하고 있다. 현실의 고통과 고난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 이상세계를 상상하고 동경하게 되는데 최경창(崔慶昌)도 신선세계라는 이상세계를 통해 현실 도피와 초탈을 갈망했다고 본다. 선계(仙界)의

15) 李東歡, 「조선조 한시에 있어서 민요취향의 대두」, 『한국한문학 연구』 제34집, 1979, 52쪽.

이상세계를 추구한 것은 고려 때부터 제가(諸家)의 문집에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16세기 이후 선조와 광해군 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창작 되게 된 이유를 정민은 문예사조의 측면, 사상사의 측면, 작가 의식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폈다.¹⁶⁾ 문예사조적인 측면에서는 송시풍(宋詩風)에서 당시풍(唐詩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와 정쟁으로 인해 현세초탈적(現世超脫的) 신선사상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작가의식의 측면에서는 신선사상에 대한 작가들이 대부분 서인이었는데 정철이 유배되면서 서인정권이 몰락되자 당대에 포용되지 못하고 암담한 시절에 억압의 공간에서 초월하려는 그들의 의지 때문이라고 보았다.

碧宇標眞界	푸른 집은 신선세계를 가리키고
玄壇降太淸	도관(道觀)은 태청(太淸神)에서 내려왔네
鸞棲珠圃樹	난새는 주포수(珠圃樹)에 깃들어 있고
霞繞紫微城	노을은 대제(大帝)가 계시는 자미성을 둘렀네
寶籙三元秘	보록은 삼원의 비결 담았고
神丹九轉成	신단은 아홉 번 굴러서 만든 것이네
芝車人不見	치초 수레에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空外有簫聲	허공 밖에서 통소소리가 들리는구나.

<朝天宮>¹⁷⁾

위의 시는 중국 연경에 갔을 때 도교(道敎)의 도관(道觀)을 보고 지은 것인데 허균(許筠)은 『국조시산(國朝詩刪)』에서 이 시를 ‘선가상승(仙家上乘), 즉 신선 세계를 그린 뛰어난 시라고 평했다. 그리고 『학산초담(鶴山樵談)』에는 이 시가 중원에까지 전파되어 왕봉주(王鳳洲) 선생이 칭찬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¹⁸⁾ 진계(眞界), 현단(玄壇), 태청(太淸), 난(鸞), 주포수(珠圃樹), 삼원(三

16) 정민,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147~168쪽.

17) 『孤竹集』

18) 『鶴山樵談』 張 3.

崔慶昌字嘉運 隆慶戊辰(1568)進士 歷官至知鍾城府 以事降階 受國子直講 卒 嘗赴京 作詩

元), 보록(寶籙), 신단(神丹), 지차(芝車) 등은 화려한 선계(仙界)의 시어들로 매우 환상적이다. 수련(首聯)에서는 도관(道觀)의 주위 환경과 도관(道觀)에 모신 태청신(太淸神), 즉 태청(太淸) 태상노군(太上老君)과 상황태상(上皇太上) 무상도군(無上道君) 등의 모신 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함련(頤聯)은 난새와 노을로 도관의 신비로운 경관을 묘사한 것이다. 난새는 봉황과 비슷한 새인데 『산해경』에 의하면 여상산(女悤山)에 살고 있으며, 생김새는 꿩과 비슷하고 오색 무늬가 있는데, 이 새가 나타나면 세상이 편안해진다고 했다.¹⁹⁾ 난새는 학, 공작 등과 더불어 선계를 날아다니는 새다. 경련(頸聯)에서는 도관에 있는 물건들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보록(寶籙)은 도교의 미래기(未來記)이고 삼원(三元)은 최상의 지위를 차지하는 신적 원리이며 신단(神丹)은 구단(九丹) 중의 하나로 구단(九丹)은 단화(丹華), 신부(神符), 신단(神丹), 환단(還丹), 이단(餌丹), 연단(鍊丹), 유단(柔丹), 복단(伏丹), 한단(寒丹)인데 장생불사약(長生不死藥)으로 이를 먹으면 승천(昇天)할 수 있다고 한다. 미련(尾聯)에서는 초현실적 분위기로 신선이 타는 수레는 있지만 신선은 보이지 않고 허공 밖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신선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위의 시는 도교의 초월적 신선사상이 작가의 낭만적 상상력에 의해 진솔하게 표현된 것이라 본다.

玉檻秋來露氣清	옥난간에 가을이 들어 이슬기운 맑아지고
水晶簾冷桂花明	수정말은 차가운데 계수나무 꽃은 환하구나
鸞驂不至銀橋斷	난새 수레 오지 않고 은하교도 끊어졌으니
惆悵仙郎白髮生	슬프게도 선랑은 흰머리만 생겨나네

〈映月樓〉²⁰⁾

於朝天宮曰 午夜瑤壇掃白雲 焚香遙禮玉宸君 月中拜影無人見 琪樹千重鎖殿門 又曰 三清露氣濕珠宮 鳳管襄迴月在空 宛路至今香輦絕 碧桃紅杏自春風 有道士泰姓忘其名 亦能詩大加稱賞 迨至通州河清觀 請題其卷詩曰 碧宇標眞界 玄壇降太淸 鸞棲珠圍樹 霞繞紫微城 寶籙三元秘 神丹九殿成 芝車人不見 空外有簫聲 此詩傳播中原 王鳳洲先生甚加推賞

19) 정제서 역주(1993), 『山海經』, 81쪽.

西南三百里 曰女悤之山 … 有鳥焉 其悤如翟而五采文 名曰鸞鳥 見則天下安寧

위의 시는 <영월루> 네 수 가운데 셋째 수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탈속적(脫俗的)이고 환몽적(幻夢的)이다. 허균의 『국조시산』에서는 이 시를 절구는 편편마다 모두 청절하여 당나라 때에 내놓아도 소백(少伯) 왕창령(王昌齡) 등 여러 공들에게 양보할 것이 없다²¹⁾라고 평하였다. <영월루>에 쓰인 시어를 보면 옥함(玉檻), 수정렴(水晶簾), 난참(鸞驂), 선랑(仙郎) 등 신선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영월루를 신선(神仙)의 세계로 묘사하고 있어 속세를 떠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특히 작중 화자를 여성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성적인 정감이 잘 나타나 있다. 기구(起句)와 승구(承句)는 가을이 되어 쌀쌀해진 날씨에도 계수나무 꽃이 활짝 피어 있는 영월루의 주변 묘사한 것이다. 전구(轉句)와 결구(結句)는 영월루에서 사랑을 나누던 선랑이 선녀를 에타게 기다리는 모습에 대한 표현인데 선계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선계는 현실적인 고통이 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이지만 이와는 달리 인간세계는 시끄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고통과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 선계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본다.

午夜天壇掃白雲	한 밤중에 천단의 흰 구름 쓸어내고
焚香遙禮玉宸君	향불 올려 옥황상제께 예를 드리는데
月中拜影無人見	달빛 속엔 절하는 모습뿐 보는 사람 없고
琪樹千重鎖殿門	고운 숲 천 겹 속에 전각문은 단혀 있네

三清露氣濕珠宮	삼청 이슬 기운 고운 궁을 적시네
鳳管裊廻月在空	봉황새 위 피리소리 들리고 달은 떠 있구나
宛路至今香輦絕	꽃이 핀 길 이제와선 향연이 끊겼지만
碧桃紅杏自春風	벽도화 붉은 살구꽃 봄바람에 절로 피네

<天壇 >²²⁾

20) 『孤竹集』

『大東詩選』에는 ‘不至’, ‘惆悵’이 ‘一去’, ‘惘悵’으로 되어 있다.

21) 『國朝詩刪』 卷3

此君絕句 便便皆清切 置之唐世 無讓少伯諸公

위의 시는 최경창(崔慶昌)이 중국의 천단(天壇)에 가서 초제(醮祭)를 지내는 광경을 보고 지은 것이다. 초제(醮祭)는 제천행사(祭天行事)를 통해 황제의 권위 강화와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뿐만 아니라 성변(星變), 재변(災變) 등 자연현상에 대해 절대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도교(道敎)의 신에게 기복양재(祈福禳災)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초제(醮祭)의 대상신(對象神)은 주로 삼청(三清), 태일(太一) 등의 신(神)이 주로 숭배되었다. 천단(天壇)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해 지은 제단이다. 조선조에서도 삼청전(三清殿)에서 도교의 삼청상(三清象)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었다. 허균은 『국조시산(國朝詩刪)』에서 “두 작품 모두가 유선(遊仙)에 비해 부끄럽지 않다.”²²⁾라고 하였다.

첫째 수 기구(起句)에서 구름 속에 천단(天壇)이 있다는 것은 높은 곳에 천단(天壇)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속과는 격리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승구(承句)는 밤에 천단(天壇)에서 초제(醮祭)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후향을 피워 강신(降神)하게 하며 옥황상제께 예를 올리는 모습이다. 전구(轉句)는 밤중에 멀리서 달빛 아래 예를 올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절하는 사람이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천단(天壇)이 선계(仙界)의 공간과 같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결구(結句)는 기수(琪樹)가 우거진 속에 천단(天壇)이 있는데 전각문(殿閣門)이 굳게 닫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세속과 단절된 것을 의미한다.

둘째 수 기구(起句)의 궁(宮)은 도관(道觀)을 말한 것이다. 도교(道敎)의 사원인 도관(道觀)은 도사(道士)가 제사를 받드는 도장이며 교리를 전파하는 곳이다. 초제(醮祭)는 국가제사로 이때 국왕은 초제(醮祭)의 주관자였고 도사(道士)는 의례를 담당하였다. 승구(承句)는 신선이 봉황새를 타고 부는 피리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곧 천단(天壇)이 선경임을 의미한 것이다. 전구(轉句)는 향연(香輦) 임금이 타는 수레(車)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초제(醮祭)가 끝났다

22) 『孤竹遺稿』.

23) 許筠, 『國朝詩刪』.

二篇俱無愧遊仙.

는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구(結句)는 천단(天壇)의 주위에 벽도(碧桃)와 홍행(紅杏)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고 하여 경치를 노래한 것이다. 이 시는 천단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참배 드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지만 선경과 같은 탈속적 분위기다.

王喬呼我遊	왕교가 나를 불러 노닐자고
期我於崑墟	곤륜산에 있는 나에게 기약했네
朝登玄圃峯	아침에 현포 봉우리에 올라서
遙望紫雲車	멀리 자운거를 바라보네
紫雲何容與	자주빛 구름 어찌나 그리 평화로운지
玉簫正微茫	옥피리 소리 때마침 은은하네
徑度凌天河	곧 바로 은하수를 넘어서
飄飛向扶桑	펄펄 날아서 부상을 향해가니
扶桑幾千里	부상은 몇 천리나 되었고
風波阻且長	바람과 파도가 막아서고 또 멀기도 하네
我欲捨此去	내가 이처럼 어려운 길 버리고 싶지만
深恐負所期	기약했던 바를 저버릴까 심히 두렵네
君情定何許	그대 정은 어느 썸에 있는가를 알기에
我心終不移	내 마음도 끝까지 변치 않으리

<感遇十首寄鄭季涵>²⁴⁾

위의 시에서 왕자교는 송강 정철을 상징한 것이고 나는 곧 고죽 최경창이다. 왕자교는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도인인 부구백을 따라 송고산에 오른 뒤 신선이 되었다는 인물이다.²⁵⁾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바로 서쪽 곤륜허, 즉 곤륜산 기슭이며, 왕자교가 있는 곳은 동쪽 부상(扶桑)이다. 그래서 만나자는 기약을 듣고 만남을 이루기 위해 현포봉에 올라가서 찬란한 구름수레를 타고 은하수를 건너 동쪽 부상(扶桑)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가는 길이 풍파가 거세고

24) 崔慶昌, 『孤竹集』.

25) 송준호 역, 『신선의 그림과 이야기』, 다운샘, 2007, 28~29쪽.

힘들지만 아름다운 만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가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당시 최경창과 정철은 당파에 휘말려 어려운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데 최경창은 이런 부조리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정철과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여 영원히 선계(仙界)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주이존(朱彝尊 1629-1709)이 편찬한 『명시종(明詩綜)』 권(卷) 95에는 같은 내용이 허난설현(許蘭雪軒)을 허경번(許景樊)이라고 하여 <망선요(望仙謠)>가 실려 있는데 이 시는 『난설현집』에는 실려 있지 않아 문집 이외의 시라고 볼 수 있으며 최경창의 시를 모의(模擬)한 것²⁶⁾이라 본다.

新興洞裡憶曾遊	신흥동에서 놀던 일 생각하네
屈指如今二十秋	벌써 이십년이나 되었네
幽興每隨青鶴去	그윽한 흥은 매양 청학 따라 가고
遠心空與白雲留	원대한 마음은 헛되이 흰 구름과 머물렀네
餘生欲老雙溪寺	여생을 쌍계사에서 늙고자
暇日長登八詠樓	한가한 날 팔영루에 올라보니
惆悵至今歸未得	지금껏 돌아오지 못함이 서운하여
世間人事自悠悠	세상의 인간사 절로 아득하네

<次雙溪詩軸>²⁷⁾

이진거속(離塵去俗)하고 선계(仙界)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의 갈등과 질곡을 극복하려 하거나 인생의 번뇌를 훌훌 털어버리기 위함이다. 위의 시에서 수련(首聯)은 이십년 전에 쌍계사를 찾았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함련(頤聯)은 속세를 떠나 그윽한 흥취 속에서 살고자 청학을 타고 선경으로 가려고 하지만

26) 허난설현(許蘭雪軒)이 허경번(許景樊)으로 되어 있으며 허경번(許景樊)이 지은 <망선요(望仙謠)>는 2행에서 於崑墟가 崑崙墟로, 4행에서는 遙望이 望遙로, 5행의 興容은 煌煌으로, 6행의 玉簫正微茫이 玉蒲正渺茫으로, 7행의 徑度凌天河가 倏忽凌天漢으로, 12행 深恐負所期가 佳期安可忘으로, 13행 情定이 心知로 14행 我心終不移가 賤妾徒悲傷으로 바뀌어 있다.

27) 『孤竹遺稿』

백운과 함께 속세에 머물러 있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경연(頸聯)은 여생을 신선경(神仙境)에서 보내고자 쌍계사 팔영루에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미련(尾聯)은 선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세상사 때문에 아직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작가는 현실에서 일어난 갈등과 불만을 선경의 세계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선계를 동경하게 된 것은 당시의 문단에 크게 성행하였던 악부체의 하나인 유선시(遊仙詩)를 모작(模作)하게 된 소단(騷壇)의 흐름과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또한 조선조는 규범화된 주자학적 문학이 성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환상과 낭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인해 문학에 새로운 활력소를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현실의 좌절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초월적 선계를 동경하고 찬미하였다고 본다.

3) 현실에 대한 비판

최경창(崔慶昌)이 살았던 16세기 조선사회는 각종 제도, 법령의 폐단과 지배층의 과도한 농민 수탈로 정치와 사회의 전반에 걸쳐 많은 모순이 노출되고 있었으며 사람이 사회를 거쳐 봉당정치를 형성해가며 정치주도권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 당쟁의 치열함은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그의 문제의식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사회와 삶, 정치현실의 혼탁, 백성들의 질곡(桎梏) 등을 사실주의적 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漢將孤神算	한나라 장수가 묘한 계책이 궁하게 되어
邊城戰骨荒	변방 성에는 전사자의 유골이 널려 있네
羽書飛不息	급한 문서가 끊임없이 날아들어
日夕到昭陽	밤낮으로 소양궁에 이르는 구나

<乙卯亂後>²⁸⁾

28) 『孤竹遺稿』

위의 시는 을묘왜란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다, 을묘왜란은 왜구가 전라남도 장흥, 강진, 영암, 진도 일대를 최경창이 27세 때인 명종 10년(1555)에 침입하였는데 잘 못된 계책으로 인하여 크게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약탈을 일삼은 결과 백성들의 고통은 너무나 참담했던 것이다. 그 때의 비참한 광경과 상황을 백광훈의 <달량행(達梁行)>²⁹⁾이라는 7언 고시에도 잘 드러나 있다. 기구(起句)와 승구(承句)는 당시 전라병사로 있던 원적(元積)의 잘못된 계책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원적(元積)은 왜구가 침입하자 군사를 거느리고 달량성(達梁城)으로 들어가 주둔하였으나 왜구가 성을 포위하자 자신의 옷을 던져 항복을 표시하였지만 공격이 더욱 심해져 성이 함락되고 원적(元積)은 살해되었으며 많은 군사와 백성들은 비참하게 적의 칼날에 죽어갔다. 전구(轉句)와 결구(結句)는 당시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매우 불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서(羽書)는 문서가 군사문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깃발에 새의 깃털을 꽂았기 때문에 붙여진 말인데 이 우서(羽書)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대궐에 도달하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을묘왜란 때에 최경창(崔慶昌)은 영암에 살고 있었는데 왜구가 침입하자 피난을 가다가 포위당하게 되었는데 그 때가 달밤이어서 가지고 있던 통소로 한 곡조 연주하자 포위를 풀어주었다는 것이다.³⁰⁾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을묘왜변의 비참한 광경을 보고 무기력한 조정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을 안타까워하고 피해가 극심한 것에 대한 비판을 묘사한 것이다.

五馬西歸遠	태수가 해서로 멀리 가니
千門北望深	서울에서 보는 북쪽은 아득히 멀고
今朝寄君淚	이 아침 그대에게 눈물을 보내니

29) 『玉峯集』

30) 『孤竹遺稿』, 孤竹詩集後敍.

又妙琴笛 少時寓居靈巖 值倭寇猝至 乘舟以避 賊圍之急 時月光如晝 海波不動 公取所藏玉簫
朗吹 闕 聲更清越 賊衆聞之 皆懷思還鄉 瞿然相顧曰 此園中必有神人 遂解面 公得脫鄉

不獨別離心

단지 이별의 슬픔만은 아니라네

<送尹子昇之郡海西>³¹⁾

위의 시는 1581년 윤현(尹晔 1536-1597)이 진도 군수 이수(李銖)의 뇌물사건(1578)에 연루되어 당시 동인이었던 이조 전랑 김성일(1538-1593)의 탄핵을 받아 안악군수로 좌천되어 갈 때 윤현(尹晔)을 전송하면서 쓴 것이다. 이 시에는 주(主)가 달려 있는데 주(主)를 보면 “자승의 이름은 현으로 이때 이조전랑이었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 안악 군수로 좌천되었다(名晔時以吏郎 忤於世出郡安岳郡)”이라고 되어 있다. 윤현(尹晔)은 당시 서인의 거두인 작은 아버지 윤두수(尹斗壽), 윤근수(尹根壽)가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삼윤(三尹)이라고 일컬었다. 서인인 윤현(尹晔)은 동인인 김성일(金誠一)과는 당시에 전랑(銓郎)으로서 동서분당이 격화되어 가던 중 김성일(金誠一)이 경련(經筵)의 때에 선조의 면전에서 삼윤(三尹)에게 쌀을 뇌물로 주었다는 말을 꺼낸 것이 문제가 되어 옥사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발(李潑)을 위시한 동인 쪽에서는 삼윤(三尹)을 크게 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정철(鄭澈)은 이들 삼윤(三尹)을 옹호하다가 동인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탄핵을 입고 사간원(司諫元) 대사간(大司諫)에서 체임(遞任)되어 물러난다.

기구(起句)와 승구(承句)는 윤현이 부임해 가는 안악군은 황해도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한양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친구가 먼 곳으로 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구(轉句)와 결구(結句)를 보면 그 슬픔이 단지 친구를 황해도 안악으로 멀리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최경창(崔慶昌)의 마음이 슬픈 것은 바로 친구인 윤현(尹晔)에게 내직에서 외직으로 쫓겨 가게 한 처분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 최경창(崔慶昌)은 윤현(尹晔)과 함께 서인이었는데 동

31) 『孤竹遺稿』

서분당의 정치적 패배에 대한 동정과 더불어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淳風去已遠	순박한 풍속이 없어진지 오래고
世道日幽昧	세상의 도는 날로 어두워지네
征伐降殷周	정벌은 은나라 주나라를 항복시켰고
祥麟竟遇害	상서로운 기린 마침내 해를 입었네
鳳凰化鷄鶩	봉황은 닭과 오리로 변해버리고
蘭蕙爲蕭艾	난초와 혜초는 썩어 되고 말았네
遂令孔孟徒	마침내 공맹의 무리로 하여금
失意屢顛沛	뜻을 잃고 자주 좌절하게 만드는데
時運旣如此	시운이 이미 이와 같으니
民生將何賴	백성들은 장차 무엇에 의지하리오.

<感遇十首寄鄭季涵> 其四首³²⁾

위의 시는 삼윤(三尹)인 윤두수(尹斗壽), 윤근수(尹根壽) 형제와 그들의 조카 윤현(尹現)이 진도 군수 이수(李銖)로부터 쌀을 뇌물로 받았다고 장세량(張世良)에게 자복을 받아내어 당시 집권세력인 서인을 탄핵위해 동인들이 무고한 사건이다.³³⁾ 이 사건으로 인해 삼윤(三尹)은 파면되고 서인들은 세력이 크게 꺾이게 된다. 그리고 사헌부의 이식(李杛), 홍훈(洪渾) 등이 정철(鄭澈)과 김계휘(金繼輝) 등을 사당(邪黨)이라고 비방하는 상소를 올린다. 그런데 율곡(栗谷)이 대사간 사직을 하며 정철을 옹호하는 상소³⁴⁾를 올리자 유성룡(柳成

32) 『孤竹遺稿』

33) 『宣祖修正實錄』 12年 4月 1日.

時 李銖之獄久不成 張世良受刑二十餘次不服 殆死而終不服…時人欲銖獄必成 凡獄中訴冤書疏 皆遏而不上 士大夫少有言及獄事無實者 皆斥爲邪黨…世良接置賂物 不過爲干證 法當三訊而止 必也死罪 乃以輸情爲限 而時人必欲取服世良 而逮三尹 而不念殺不辜之爲非義 由是 人情不平.

34) 『松江集』 松江年譜 己卯條

至於鄭某忠清剛介 一心憂國雖量狹見偏病於執滯 而論氣節則實是鶻之比

龍) 이발(李潑), 허엽(許曄) 등의 동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자 정철(鄭澈)은 깊은 환멸감에 빠져 창평(昌平)으로 낙향을 한다. 그러자 최경창이 당쟁의 폐단과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 선비로서의 울분, 당시의 사회상을 묘사하여 <감우십수기정계함(感遇十首寄鄭季涵)>을 짓게 된다.

시를 보면 날로 험악해지는 세상을 탄식하며 백성을 걱정하는 심경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현실의 정치상황을 부정하는 것이며 정철의 불운한 관직생활을 위로하기 위한 수단인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은나라 주나라를 항복시켰다는 것은 맹자의 성인지칭의 대상인 백이와 숙제로 대표되는 은(殷)나라나, 공자의 예악정치 구현대상인 주(周)나라, 그리고 봉황, 지초와 대비되어 있는 세상의 도는 날로 어두워져가니 백성들에게는 위화감(違和感)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의지할 바를 상실하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백성들의 애환과 고통을 통해 당시의 현실정치에 대한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본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의 현실에 대한 통찰과 분석적 결과라기보다는 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철의 불운한 정치적 패배를 합리화내지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 본다.

楚國傷讒日	초나라에서 참소를 당해 상심하던 날
懷沙怨屈原	회사부를 지어 원망했던 굴원이여
湘江流不歇	상강은 흐르고 흘러 쉬이 없는데
千載寄遺魂	천년 동안 남긴 넋을 띄워 보내네.

<楚調>³⁵⁾

한시(漢詩)의 작품 속에는 단순한 중국의 역사 인물이나 인물과 관련된 역사를 나열하여 당시의 정치나 사회 현상을 반영함으로써 자신의 불우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경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위의 시에서 굴원(屈原)은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으로 초(楚)나라는 제후국들 중에 제

35) 『孤竹遺稿』

(齊), 진(秦)나라가 함께 가장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 굴원은 친제공진(親齊攻秦)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지만 친진(親秦) 세력의 상관대부 근상(靳尚)을 중심으로 한 간신들의 모함으로 방출된다. 그리고 경양왕(頃襄王) 때에 진(秦)에 의해 초(楚)나라가 망하자 절망감과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호남성 장사 부근의 먹라강(汨羅江)에 투신한다. 위의 시는 굴원(屈原)에 대한 단순한 조사(弔辭)가 아니다.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굴원(屈原)의 시대와 최경창(崔慶昌) 당대, 그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대응관계에 놓음으로써 천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현실은 혼탁하며 참소가 횡행하고 간신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그의 현실인식의 비판적 측면³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동인에 의한 서인 정철의 정치적 패배감과 그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즉 정치적 패배가 곧 현실정치의 부정과 부패에 의한 것이라고 돌리는 것이다.

門前車馬散如烟	문 앞에 차마(車馬) 연기처럼 흩어졌으니
相國繁華未百年	정승의 영화도 백년을 못가는 구나
深巷寥寥過寒食	깊숙한 거리 쓸쓸하게 한식날은 지나가고
茱萸花發古牆邊	산수유만 옛 담가에 피어 있구나.

<大隱巖>³⁷⁾

대은암(大隱巖)은 북악산 기슭에 있는 바위로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남곤(南袞 1471-1527)이 살던 집 뒤에 있는 것이다. 위의 시는 최경창(崔慶昌)이 대은암(大隱巖)에 올라가 남곤(南袞)의 옛 권세와 영화의 덧없음, 그리고 인정(人情)의 추이(趨移)에 대한 것을 풍자한 것이다.

남곤(南袞)은 훈구대신으로 중종 14년(1519)에 심정(沈貞 1471-1531), 홍경주(洪景舟 ?-1521) 등과 기묘사화(1519)를 일으켜 조광조(趙光祖 1482-1519), 김정(金淨 1486-1520), 김식(金湜 1482-1520) 등의 사림세력을 숙청하였다. 그

36) 安炳鶴, 『崔慶昌의 詩世界와 삶의 安定性에 대한 懷疑』, 『秦東古典研究』 第2輯, 1986, 99쪽.
37) 『孤竹遺稿』.

『國朝詩冊』에는 “大隱巖南正亭故宅”이라 기록되어 있다.

후 영의정까지 올라 영화를 누렸으나 말년에 자신의 죄를 자책하고 필화(筆禍)를 우려하여 사고(私稿)를 불태워 버리기도 하였다. 사후(死後)에 문경(文敬)이라는 시호(諡號)까지 받았으나 명종 13년(1558)에 삭탈관작(削奪官爵)되었다. 기구(起句)와 승구(承句)는 난곤(崑)이 재상을 지내면서 영화를 누렸을 때를 상기하면서 그때는 탐관오리들이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흠어지는 연기처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쓸쓸하다는 것이다. 전구(轉句)와 결구(結句)는 옛날에 한식은 단오, 추석, 설날과 함께 사대명절³⁸⁾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날 각 가정에서는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남곤의 집에는 한식임에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산수유 꽃만 피어 있다. 최경창(崔慶昌)에게 남곤(南袞)은 역사적인 인물의 회고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기 위한 소재였을 뿐이다. 즉 남곤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 권력과 영화의 무상함을 일깨워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불만족스러운 동서분당의 정치현실에 대한 풍자와 자위적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다. 허균(許筠)은 이 시가 “풍자가 골수에까지 들어갔다”³⁹⁾라고 평하기도 했다.

官橋雪霽曉寒多	관청 앞 다리에는 눈 녹고 새벽은 몹시 추운데
小吏門前候早衙	아전은 문 앞에서 아침 조화를 기다리네
莫怪使君常晏出	사군이 항상 늦게 나오는 것 괴이히 여기지 말게
醉開東閣賞梅花	취하여 동쪽 장지를 열고 매화를 감상하신다네

<寄楊州成使君義國>⁴⁰⁾

38) 『조선대세시기』 III, 국립박물관, 2007, 217~218쪽.

서울 풍속에 이 날 조상의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네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절사(節祀)라고 하는데, 선대로부터의 전통과 집안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식과 추석에 가장 성하다. 이때는 사방 교외에 남녀들의 행렬이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을 정도다.……이 날 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음식을 미리 익힌다는 뜻으로 숙식(熟食)이라고도 하였으니 이는 그 당시 개자추(介子推)가 이날 불에 타서 죽은 것을 가엾게 여기고 마음 아파하여 불 사용을 금하던 유숙(遺俗)인 것이다. 지금 한식이 설, 단오 및 추석과 함께 네 명절로 된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이다.

39) 許筠, 『國朝詩冊』

諷刺入骨.

위의 시는 성의국(成義國)이 양주목사가 되었을 때 매화라는 기생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에 매혹되어 정사를 돌보지 않는 것을 보고 최경창(崔慶昌)이 이 시를 지어 보냈다고 한다.⁴¹⁾ 조선조는 오래도록 여악(女樂) 철폐가 논의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일부 관리들은 관기를 혁파하지는 상소문도 올리지만 지방관리로 임명되면 그들도 기녀를 가까이 하였다.⁴²⁾ 성현은 15세기 지방 관리들의 향응풍속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지방에 사신으로 가는 자는 관리들이 지경(地境) 내에서 영송(迎送)을 하는데, 먼저 주식(酒食)을 갖추고 준비하였다가 고을에 들어오면 며칠 동안 머물게 하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 흠뻑 취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술이 깨어 있는 날이 없으니 이렇게 하여 병을 얻어 폐인이 되는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그러므로 졸(拙)한 사람은 관의 돈을 없애서 날로 퇴폐해지고 능한 자는 영리를 꾀하여 자기의 사복(私腹)을 채우므로 관가는 날로 쓸쓸해지고 관리와 백성은 점차 초췌하여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⁴³⁾

조정(朝廷)의 관리가 지방의 사신으로 내려갔을 때 지방관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내용인데 그 자리에 기녀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이러한 향락생활은 한양의 조정 관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본다.

조선조에는 육조에 속직하는 낭관들은 달밤에 창기들과 어울려서 광화문 밖에 모여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노래도 불러 밤새도록 마시고 담소하였으니, 이것은 태평시대의 일이다. 한갓 육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간원의 관원도 또한 곡회(曲會)를 일삼았고, 임직하는 밤에는 반드시 기생을 끼고 잤다. 새벽녘이면, 일 말

40) 『孤竹遺稿』

41) 朴素英, 「孤竹 崔慶昌 詩文學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漢文學科 碩士論文, 1994, p.52.

42) 『世宗實錄』 권88, 22년 3월, 庚申條

고약해(高若海)가 평일에 하는 말은 고상하나 말이 행실과 다르므로 사람의 추복(推服)하는 바가 되지 못한다. 전에 강원도와 충청도를 관찰할 때 항상 기녀를 싣고서 따르게 하면서, 상서하여 창기를 혁파하고자 하였으니 이 말이 행실과 다른 한 가지 일이다.

43) 『國譯東野乘』 1, 민족문화추진회, 1971, 212~213쪽.

아보는 아전이 창밖에 서서 뵈기를 청하는데, 이것은 계집을 일찍 내어 보내게 하려는 것이었다.⁴⁴⁾

조선조는 유교적 도덕 이념이 기본적인 욕구를 억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녀의 자유로운 만남은 엄격하게 규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인간적 욕구를 사회적으로 공인된 기녀와의 관계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연이 치자(治者)들도 주색으로 방탕했다고 본다. 이러한 조선조 사회의 비리를 풍자한 것이 바로 위의 시인 것이다.

田家無宿糧	농가에 묵은 식량이 없어
日日摘新麥	날마다 풋 보리를 따 온다네
摘多麥已盡	많이 뜯어버려 보리가 이미 다 했네
東隣猶未穫	이웃은 아직 수확도 하지 않고 있네

<田家>⁴⁵⁾

조선조의 농민생활을 극한 상태로 몰고 간 것은 수령들 보다 오히려 아전이 나 서리들 때문이었다. 이들이 착취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일정한 봉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활 보장이 전무한 그들은 세습적으로 직(職)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사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일체 실무는 이들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모든 농간이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농민들에게 수탈을 하게 되고 수탈에 의한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해갈 수밖에 없었다. 위의 시는 궁핍한 농촌의 실상을 통해 당시의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관리들의 수탈은 조선조의 전 시기를 통해 극심했는데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을 나라에서 모를 리 없지만 지배

44) 『國譯大東野乘』 1, 민족문화추진회, 1971, 212~213쪽.

45) 『孤竹遺稿』

층의 사치와 수탈이 끊이지 않자 <병자춘(丙子春)>이라는 시를 통해 역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⁴⁶⁾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은 1706년 회빈 장씨의 소생인 세자(경종)를 모해하려 한다는 혐의를 받고 제주에 위리안치 되었는데, 제주도에 있을 때 지은 제주소견(濟州所見)에서도 당시의 사회상을 찾아볼 수가 있다.⁴⁷⁾ 기구(起句)의 전개(田家)는 기근(饑饉)이 극도에 이르렀는데도 결구(結句)의 동린(東鄰)에서는 아직 보리 베기를 시작하지도 하지 않았으니 빈부(貧富)의 격차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알 수 있다.

九月十七夜	구월 십칠 일 밤에
雲黑風頗奔	먹구름이 끼고 바람은 자못 거세더니
電光室中明	번갯불이 방안에까지 번쩍이고
怒雷裂厚坤	성난 벼락소리 땅을 가르네
飛雨雜鳴雹	흐날리는 비가 세찬 우박과 섞여
崩騰洒林園	무너지는 듯 솟아오르는 듯 숲에 뿌렸네
是時尚未穫	아직 거두어들일 때가 아닌지라
禾穀遍郊原	벼와 곡식이 들녘에 널려 있네
擺落半泥土	진흙 속에 반이나 떨어졌으니
殘實復幾存	남은 열매가 다시 얼마나 될꼬
…<중략>…	…<중략>…
癘疾人丁死	전염병으로 젊은이들은 죽어가고
毒禍及牛豚	독한 재앙이 가축에까지 미쳤네

46) 『梅月堂集』

滿室歌鴻雁	집집마다 못살겠다는 소리
千村咏葛藟	마을마다 살려달라는 소리
民愁方有極	백성의 원한이 극에 이르렀는데
千眷豈無知	하늘이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47) 『北軒集』

青木棉裙短布靱	맘물 들인 몽당치마 입고
癸田閤氏淚潛吞	계진 각시들 눈물이 많다
朝朝約伴携筐去	아침마다 떼지어 관주리 끼고
探得蛙頭苜蓿根	풀뿌리를 캐어먹고 살고들 있다.

蕭條如經亂	쓸쓸함이 난리를 겪은 듯
山曲多空村	산골짜기에는 빈 마을이 많네
…<중략>…	…<중략>…
何以供賦稅	어떻게 해서 세금을 바치리오
敢望具餐飧	감히 밥 지어 먹을 것을 바라겠는가
四隣絕晨烟	사방엔 아침 짓는 연기 끊어지고
但聞哭聲喧	닭 우는 소리만 시끄럽게 들리네

<雨雹>⁴⁸⁾

위의 시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먹을 미곡(米穀)들이 바닥으로 모두 떨어져 버린 데다가 전염병까지 퍼져서 마을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많이 죽어 전쟁을 겪은 것처럼 폐허가 되어버린 처참한 농촌의 풍경과 삶에 대한 고통을 사실 그대로 담아 묘사하였다. 조선조는 많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는데 백성들이 직면한 자연재해 가운데 커다란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는 무엇보다도 수해(水害), 한해(旱害), 풍해(風害)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위의 시도 풍해(風害)에 의한 피해로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흉년이 들게 된다. 흉년은 대부분 참혹한 기근과 공포스런 역병(疫病)이 대개 동행하였는데 이럴 때 조정에서는 이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그것이 바로 구황(救荒)이다. 구황(救荒)의 정책 즉 황정(荒政)이 잘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고, 그 뿐만 아니라 조선조 봉건사회의 내적 모순의 심화로 인한 당쟁의 심화, 삼정(三政)의 문란, 그리고 이러한 문란에 따른 관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가 극심하여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소작과 유민(流民)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농본주의 국가에서 농민이 몰락하고 유민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가의 뿌리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시는 농민과 지배층,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 구조를 기본구조로 하여 진술되는데 이와 같은 대립 구조는 진술된 내용의 객관성을 증대시키는

48) 『孤竹遺稿』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딱한 처지를 더욱 부각 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경창도 이 시에서 농민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최경창은 서인으로서 당시의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 사회적인 문제점, 백성들의 고통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비판적인 사고로써 시를 형상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최경창 시의 특성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은 백광훈(白光勳), 이달(李達)과 함께 삼당파(三唐派) 시인으로서 허균(許筠)⁴⁹에게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송풍(宋風)에서 당풍(唐風)으로의 전환을 통해 16세기 새로운 시풍을 주도해 나간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어 왔다. 16세기 사대부의 문학은 사장 중심의 관인문학과 도학 중심의 사림문학이 대립을 이루고 있었으나 이와는 달리 최경창은 청렴개결(淸廉介潔)한 성품을 바탕으로 봉건윤리에 의해 가려졌던 인간의 감정을 재인식하고 주정적(主情的) 경향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시풍은 원화체(元和體)에 가깝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⁵⁰ 원화체(元和體)란 당나라 헌종(憲宗)의 원화(元和) 연간(年間 806-820)에 백거이(白居易 772-848), 원진(元稹 779-831)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새로운 시체(詩體)로, 그들의 시론(詩論)은 사회의 모순과 정치의 난맥상,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이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시가 전개되었다. 그런데 최경창(崔慶昌)의 시에서도 이러한 경향

49) 許筠, 『許筠全集』, 鶴山樵談

崔白李三人詩皆法正音 崔之清勁 白之枯淡 皆可貴重 然氣力不遠 稍失事厚 李則富麗 比二氏 家數頗大 皆不出郊島之藩籬

50) 宋時烈, 孤竹集序, 『孤竹遺稿』.

公之詩雖逼於天寶元和 豈足以掩其人乎

의 시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는 동인(東人)과의 대립관계에 있었던 서인(西人)으로서 당시의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 사회적인 문제점, 백성들의 고통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비판적인 사고로써 시를 형상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선의 의기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최경창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승자라기 보다는 패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당시의 정치현실을 묘사할 수 있었으며, 백성의 고통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였다고 본다. 한편 최경창(崔慶昌)의 시가 어떤 풍격(風格)을 지녔는지 평자(評者)들의 평어(評語)를 보면 대강 청고(淸苦)⁵¹, 청경(淸勁)⁵², 청숙(淸淑)⁵³, 청신준일(淸新俊逸)⁵⁴, 청려(淸麗)⁵⁵, 청절(淸切)⁵⁶, 한경(悍勁)⁵⁷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청(淸)”의 의미는 차가운 물줄기가 커다란 계곡을 씻어 내리는 것과 같은 것,⁵⁸ 평범함과 속됨을 넘어선 경지,⁵⁹ 유창하고 아름다워 탁하거나 막히지 않는 상태,⁶⁰를 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청(淸)은 대체로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산뜻하며 순수한 산천경개, 나아가 일상세계를 초월한 선경(仙

-
- 51) 李暉光, 『芝峯類說』
至近世 崔慶昌 白光勳 始學唐 務爲淸苦之詞
- 52) 許筠, 『鶴山樵談』
崔白李三人詩 皆法正音 崔之淸勁 白之枯淡 皆可貴重
- 53) 南龍翼, 『壺谷漫筆』.
崔孤竹慶昌之淸淑 白玉峯光勳之孑瘦郎 李蓀谷達之孤絕
- 54) 朴世采, 『孤竹遺稿』, 孤竹詩集後序.
栗谷先生稱之 以淸新俊逸
- 55) 洪萬宗, 『小華詩評』.
崔孤竹慶昌 題駱峯人家詩曰…(中略)…淸麗如畫.
- 56) 許筠, 『國朝詩刪』.
此君絕句 篇篇皆淸切 置之唐稅 無讓少伯諸公.
- 57) 許筠, 『惺叟詩話』.
崔詩悍勁 白詩枯淡 俱不失唐蹊逕 誠亦千年希調也
- 58) 許筠, 『惺所覆瓿藥』 蓀谷集序.
其淸也 若霜流之洗巨壑
- 59) 胡應麟, 『詩藪』 外篇 卷4.
淸者 超凡絕俗之謂
- 60) 楊慎, 『升庵詩話』 卷9.
淸者 流麗而不濁滯

境)이나 선취(仙趣)를 느낄 수 있는 맑고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한 것과 관련된 시의 풍격(風格)이라할 수 있기 때문에 평자들이 최경창(崔慶昌)의 이러한 시를 읽고 그 느낌을 나타낸 말이 “청(淸)” 계열의 풍격(風格)라고 본다. 최경창(崔慶昌)은 한 편의 시를 낼 때마다 시구를 단련하고 조탁하여 마음이 흡족해진 뒤에야 사람들에게 내보였다⁶¹⁾고 하는 것은 그가 시어 표현에 있어서 조탁과 성물에 얼마나 심혈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시는 간결하고 산뜻한 리듬과 시어를 구사하고 있어 의상(意想)에 있어서는 나약함이나 방종함을 보여주지 않을⁶²⁾ 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감을 일으키는 시어는 맑고 청아한 인상과 울림을 준다. 이처럼 그는 우리의 한시를 미적(美的) 차원에서 크게 격상시켰다고 본다. 또한 여인의 정한(情恨)에 의탁하여 쓴 작품을 통해 염려(艷麗)한 특징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최경창(崔慶昌) 시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경창의 시에 쓰인 시어는 일반적으로 연우(烟雨), 도화(桃花), 양류(楊柳) 등과 같은 두 자의 용어를 많이 쓴다거나, 이미지 어휘의 사용, 또는 악부시(樂府詩) 계열의 작품에서 일상어의 활용, 조선의 지명을 중국 지명으로 변용⁶³⁾, 그리고 연정시(戀情詩)에서의 애상적이고 환몽적인 내면의식 등은 모두가 최경창 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의 작품세계와 풍격(風格)을 살펴보았는데 작품세계는 주제에 따라 연모의 정한, 선경의 동경, 현실에 대한 비판으

61) 許筠, 『許筠全書』, 『惺叟詩話』.

孤竹詩 篇篇皆佳 必鍊琢之 無歉於心 然後乃出故耳

62) 金鐘西, 「孤竹 崔慶昌 詩의 風格」, 『韓國漢詩研究』12권, 韓國漢詩學會, 2004, 261쪽.

63) 卞鐘鉉, 「崔慶昌 漢詩의 風格 研究」, 『東洋學』 第31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1, 100쪽.

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최경창의 작품 속에는 연정(戀情)을 대상으로 한 시가 상당이 있는데 조선조에는 염정(艷情)의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것은 대개 기녀(妓女)들 이었을 뿐 양반계층에서는 매우 드물었다. 이와 같은 작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는 아마 풍부하고 섬세한 여성의 감정이 자신의 낭만적 감정을 표출하는데 부합되어 자연스럽게 시적 표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선계(仙界)를 동경하게 된 것은 당시의 문단에 크게 성행하였던 악부체(樂府體)의 하나인 유선시(遊仙詩)를 모작(模作)하게 된 소단(騷壇)의 흐름과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현실의 좌절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초월적 선계를 동경하고 찬미하였다고 본다. 그는 또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승자라기보다는 패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당시의 정치현실을 묘사할 수 있었으며, 백성의 고통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였다고 본다. 한편 최경창(崔慶昌) 시의 풍격(風格)은 청신(清新)한 풍격이라 본다. 청(淸)은 대체로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산뜻하며 순수한 자연의 산천경계, 나아가 일상세계를 초월한 선경(仙境)이나 선취(仙趣)를 느낄 수 있는 맑고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한 것과 관련된 시의 풍격(風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에 쓰인 시어(詩語)는 일반적으로 2자의 용어법, 이미지 어휘의 사용, 악부시(樂府詩) 계열 작품의 일상어 활용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명주, 「고죽 시의 품격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순자, 「고죽 최경창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연수, 「한시 품격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중서, 「옥봉 백광훈 시의 품격」, 『한국한시연구』, 3, 한국한시학회, 1995, 189~229쪽.
(UCI : I410-ECN-0102-2009-810-002381368)
- _____, 「고죽 최경창 시의 품격」, 『한국한시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4, 227~266쪽.
(UCI : G704-000619.2004.12.008)
- 변중현, 「최경창 한시의 품격 연구」, 『동양학』, 3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1, 82~102쪽.
(UCI : I410-ECN-0102-2009-910-005093426)
- 안병학, 「최경창의 시세계와 삶의 안정성에 대한 회의」, 『태동고전연구』, 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86. 91~124쪽
- 이수광, 『지봉유설』, 아세아문화사영인, 1973.
- 이종묵, 『한국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 정 민, 「16,7세기 학당풍의 성격과 그 품격」, 『한국한문학연구』 19, 1996, 189~222쪽
(UCI : I410-ECN-0102-2009-720-009254858)
- 정인숙, 「시화집에 나타난 ‘청신’ 품격」, 『어문연구』, 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162~177.
(UCI(KEPA) : I410-ECN-0102-2018-700-003716996)
- 조영임, 「삼당시인의 시 세계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최경창, 『고죽유고』, 한국문집총간, 민족문화추진회, 1990.
- 최창주, 「고죽 최경창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허 균, 『성소부부고』, 민족문화추진회, 1985.
- _____, 『국조시산』, 아세아문화사, 1980.

| Abstract |

Choi, Gyeongchang (崔慶昌)'s Poetry World and Characteristics

Sun, Ji-young

Chonnam Univ. PH.D.Candidate

The Old Meritorious Faction had bureaucratic literary view because of factional politics due to elite society splendid poetic techniques and difficult and distracted modification and new Neo-Confucian literati were opposed to techniques and sought the spiritual world of clear and clean literature of reclusive scholars (處士的) in the period that Gojuk (孤竹) Choi, Gyeongchang (崔慶昌, 1539~1583) lived. However, they tried to express ethical and free nature in the period.

This thesis tried to examine the situations of the time, people's view of life, and values through Choi, Gyeongchang's works and seek his style (風格) shown in them. Because styles are the aspect that writers' personality or ideas are complexly embodied in their works, it is thought to investigate and reveal writers' literary status. The works were examined by classifying them into a limited time of love, longing for fairylands, and criticism on reality according to subjects.

First, there are many poems targeting love (戀情) in the works by Choi, Gyeongchang. The motive for creating the works like this is

thought that women's delicate and rich feelings are naturally target of poetic expression because they accord with expression of his own romantic feelings. And the point that he longed for the heavenly world (仙界) is thought to be related to the flow of Sodan (騷壇) that got to imitate (模作) poems of wandering immortals (遊仙詩), one of literary circles of the time. And it is thought that he longed for and praised the transcendental realm as a way to solve frustrations and conflicts of reality.

Choi, Gyeongchang (崔慶昌)'s poems have a clean and new (清新) style (風格). Cleanness (清) is generally fresh as well as clear and clean and is the style (風格) of poems related to descriptions of scenery or landscape or pure nature and furthermore, clear and beautiful scenes to feel the realm of immortals (仙境) or Seonchwi (仙趣) that transcended the everyday world. And poetic diction (詩語) used in the poems is thought to be characterized by the general use of pleonasm of two letters and image vocabularies and the utilization of everyday words in the works of music bureau ballad (樂府詩) series.

Key words : Choi Gyeongchang, Styles, Cleanness, Love, Criticism of reality